

“청동으로 황금을” 또는 헤아릴 수 없음: 소크라테스, 트라시마코스, 알키비아데스의 드라마

김혜경*

【요약】

플라톤 『국가』 정의론의 중심은 ‘적절한 몫’에 대한 논의이다. 『국가』 1권의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의 대립을 집약하는 열쇠 말인 ‘적절함’과 ‘능가’ 개념을 분석하여 자기 자신을 돌보라는 소크라테스의 진지한 설득의 의미를 검토한다. 『향연』의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 찬양을 통해 알키비아데스 자신을 드러냈다.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의 관계에서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각자의 이해에서 ‘적절함’과 ‘능가’를 관통하는 ‘헤아릴 수 없음’의 이중적 의미를 검토한다. 알키비아데스로서는 자신이 당한 수치를 헤아릴 길이 없다. 그런데 ‘적절한’ 몫의 대변자로 인정되는 소크라테스에게도 능가의 계기가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다. 자기성찰을 향한 소크라테스의 부단한 요구는 『향연』에서 사랑하는 일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즉 에로티카로 자리 잡는다. 아름답지 않기에 아름다움을 향한 열망을 갖고 지속적인 상승을 감행하는 『향연』속의 소크라테스는 말하자면 그 자신의 텔레마키아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논의에 충실히 의거할 때 아름다움을 향해 상승하는 에로티카의 ‘적절함’은 자신, 즉 현재의 것을 능가하는 것이다. 능가의 계기에 의해, 능가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에로티카의 전체 여정이 확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 역시 ‘헤아림-헤아릴 수 없음’에 달려있는 문제의 한 축을 내면화한 것이다.

【주제어】자기이해, 적절함, 능가, 에로스, 텔레마키아

* 인제대학교 인문학부

I. 헤아려 알기와 헤아리며 살기: 소크라테스와 자기이해의 문제

‘자기 자신 돌보기’, ‘자신에 대해 마음 쓰기’라는 탐구정신으로 소크라테스의 삶이 집약되곤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소크라테스가 지속적으로 보여준 실천적 관심에 대한 플라톤의 묘사와 해석에 근거하자면, 소크라테스는 이와 같은 자기 성찰적 태도로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점검했고 그뿐 아니라 동료시민들에게 그리고 더 확장한다면 우리들 각자에게도 그와 같은 성찰을 애써 권고하고 있다. 소크라테스가 우리들에게 이런 태도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음 써 자신을 살피고 돌보는 일을 통해서 얻게 될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하고자 하는 일, 해야 할 일을 ‘잘 해내’고 그래서 각자가 자기 삶을 ‘잘 사는’ 일로 이어질 것임을, 혹은 이것이야말로 그리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을 잘 하는 것과 관련해 흔히 언급되는 또 하나의 상식적 배경이 있다. 즉 소크라테스에서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철학적 논의의 중심은 기본적으로 용기, 지혜 등과 같은 훌륭함, 덕의 추구하고 밀접해 있거나 바로 그것이라는 인식이다. 훌륭함을 지향하고 뛰어난 것을 거두는 것은 이론가들의 논의를 구성하는 틀일 뿐 아니라 실제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을 충실히 구축했던 바탕이었다.

소크라테스의 성찰이 혼자 출발해서 홀로 완수될 것이 아니었음도 위의 어느 것 못지않게 플라톤 대화편들 곳곳에서 분명하게 전달된다. 거의 언제나 그의 탐구는 상대를 두고 상대와 함께 수행되었다. 어떤 때에는 특정한 배경 하에서 이들 앞에 놓이게 된 주제를 해명하는 대화로 또 때로는 탐구를

1) 홀로 서서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언급과 묘사는 플라톤 작품들 안에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소크라테스는 혼자만의 생각을 마무리 지으면 사람들에게로 합류하곤 한다.

함께 하는 사람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플라톤 작품에서 대화를 이끌고 가는 사람은 분명히 소크라테스이다.²⁾ 그가 비록 질문자, 탐문자의 역할로 스스로를 제한하곤 하지만 대화 주제를 촉발하고 질문을 던졌다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내놓은 대답에 대한 재 질문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앞선 대답을 돌아보며 더 말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대화의 리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의 말, 주장을 검토한다는 의미에서도 아는 것 없는 소크라테스가 대화의 리더이다.

거의 모든 주제와 훌륭함에 대해 그 자신의 무지를 인정함으로써 논의무대에 등장했던 소크라테스 그리고 소크라테스에서 출발하는 플라톤의 탐구이지만 그러나 무지에 흔히 짝 할 법한 실패나 성취해내지 못함과 같은 삶의 그들에 대한 진단이나 경험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는다. 탐구의 여정에서도 그런 것은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다. 소크라테스(플라톤)에게서 실패담, 특히 삶의 실패담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³⁾ 그러니 불안, 수치, 분노와 같이 인간이 겪는 불행한 경험, 삶의 고통 그리고 감정의 재난을 논의의 무대로 올리려 할 때 플라톤은 별로 맞춤형 작가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이 아니라 이성의 강력한 지원자이자 좋음의 대변자인 플라톤의 철학 작품에서 인간이 겪는 불행한 감정 경험이 어떻게 묘사되고 다루어지며 해소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매번 다양한 배경과 무대, 인물 그리고 때로는 독특한 분위기를 장치해 놓은 대화편들 가운데에서 가장 극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일까? 아버지

2)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려는 『향연』에는 이야기 주제를 꺼낸 사람, 대화의 주재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서 예외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곳의 소크라테스는 아는 것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 주제, 사랑에 대해서만은 그에게 말할 것이 많다.

3) 구하고자 했던 물음의 답을 찾아내어 입증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실패담은 구분된다. 즉 삶의 실패는 엘렝코스가 논의의 실패인 것과는 다른 차원의 실패이다. 예를 들어 『국가』의 소크라테스는 최상의 국가에 대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 실현가능성 논란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자신들의 관심이 실은 훌륭한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 있다는 식으로 담담히 해명하고 지나가기도 했다.

를 불경죄로 고발하러 가는 길 위에서 소크라테스를 맞닥뜨린 에우티프론도 하려던 일에 비추어 말하자면 일종의 파격이기는 하나 등장과 퇴장, 뿐만 아니라 토로하는 이야기의 강렬함까지 그 모두가 하나 같이 극적이기로 하자면 『향연』의 알키비아데스와 『국가』의 트라시마코스를 ‘능가’할 자는 없다. 이들은 모두 우선 소란스럽게 소크라테스와 맞서는 행세로 등장했고 실제로 그를 애써 반박하고자 한다. 독자들에게도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작품 속의 알키비아데스와 트라시마코스가 겪고 있는 불만과 수치가 그런데 플라톤의 핵심주장, 즉 헤아려 알기라는 문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 이 글이 착안하고 있다.

훌륭함이 주목받았던 만큼 다른 쪽으로 밀려났던 못남의 동네에 속하게 될 감정들의 문제 그리고 불확실함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이 고백되고 그 속의 인물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 그리고 타인의 문제를 응대하는 장면과 그 맥락으로 이 글을 가져가고자 한다. 회피할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 조건으로 불확실성의 문제를 지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플라톤의 중심 논의 안에서 불안을 비롯한 재난적 감정은 기본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상태이자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교정할 수 있는 경험으로 논의되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소크라테스(플라톤)는 재난적 감정의 출처와 정체 그리고 그 극복가능성을 어떻게 가늠하는가? 자기성찰을 견지하며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문했던 소크라테스에게, 그 자신의 것이든 그를 마주하는 상대의 것이든, 불안과 자기성찰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물음들을 가지고 『국가』 1권과 『향연』을 논의 진행의 기본 텍스트로 삼아⁴⁾, 자기 자신을 헤아리는 일과 관련된 몇 가지 논점을 구성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 대화편들을 옮겨가며 한 주제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조심을 기울여 할 일이다. 물론 『국가』와 『향연』의 구조적, 내용적 연관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이다.

II. 적절한 몫과 더 많이 가짐 사이의 긴장: 트라시마코스

정의(正義)는 결국 남에게 좋은 것(allotriion agathon), 즉 강한 자, 지배자의 이익일 뿐 복종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트라시마코스는 처음부터 “마치 야수처럼, 혼신의 힘을 가다듬어 찢어발기기라도 할 듯이 덤벼(336b)” 들었고 소크라테스와 논쟁하듯 격하게 대화를 시작했다. 이렇게 호전적인 트라시마코스에게 소크라테스는 호소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 그러니 우리로서는 유능한 당신들에게서 사나운 대접을 받기보다는 동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일일 것 같소”⁵⁾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다면, 정작 스스로는 대답하기를 회피한 채 쉬운 질문만 해대며 상대의 대답에서 꼬투리를 잡아 시비나 일삼는 못된 습관을 버리고 제대로 응하라는 것이 소크라테스를 향한 트라시마코스의 첫 도전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로서는 생각 없이 서로 양보만 해대는 바람에 황금을 찾을 기회, 황금보다 더 소중한 정의탐구의 결실을 날려버리며 헛수고하는 사람 취급을 하는 트라시마코스의 질타가 억울한 말씀이다.

자, 들으십시오! 정의란 더 강한 자의 이익에 다름 아니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아니, 선생께서는 왜 절 칭찬해 주시지 않죠? 안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면 말예요.(338c1-3)⁶⁾

난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저 모르게 저를 속일 수도, 말로 저를 꺾으실 수도 없을 테니까요.(341a9-b2)⁷⁾

5) ἐλεείσθαι οὖν ἡμᾶς πολὺ μᾶλλον εἰκός ἐστίν που ὑπὸ ὑμῶν τῶν δεινῶν ἢ χαλεπαίνεσθαι. 336e10-a1.

6) Ἄκουε δὴ, ἢ δ' ὅς. φημί γὰρ ἐγὼ εἶναι τὸ δίκαιον οὐκ ἄλλο τι ἢ τὸ τοῦ κρείττονος συμφέρον. ἀλλὰ τί οὐκ ἐπαινεῖς; ἀλλ' οὐκ ἐθελήσεις.

7) Εὐ μὲν οὖν οἶδα, ἔφη. καὶ οὐδέν γέ σοι πλέον ἔσται οὔτε γὰρ ἂν με λάθοις κακουργῶν, οὔτε μὴ λαθῶν βιάσασθαι τῷ λόγῳ δύναιο.

우리는 이외의 여러 곳에서 소크라테스가 트라시마코스의 태도를 묘사하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고 또 그런 트라시마코스를 마주하여 난감해 하거나 그를 진정시켜가며 대화를 이어가는 소크라테스의 응대에 대한 묘사를 읽을 수 있다.⁸⁾ 트라시마코스의 주장 내용과 이것들이 소크라테스에 의해 검토되는 과정을 세세히 살펴보는 것은 어렵다.⁹⁾ 정의로운 사람은 부정의한 사람보다 덜 갖는(*elaton echein*) 반면, 부정의한 사람이 남들을 크게 능가할 수 있음을 트라시마코스는 힘주어 말한다.¹⁰⁾ 또 이에 덧붙여 정의로운 자가 손해 보고 부정의한 자가, 그것도 어쨌든 않게 부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대규모로 그야말로 완벽하게 불의를 저지르는 자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언제나 현실을 생생히도 드러낸다.¹¹⁾ 그 바람에 그의 이런 주장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동시에 아주 강력한 일격처럼 보인다.¹²⁾ 강한 자에게 이로운 것이 결국 정의라는 주장을 할 때의 트라시마코스는 그와 같은 답변을 하는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 그러므로 정의는 남에게 좋은 것에 다름 아니라는 불만을 품고 있다. 정의로운 사람은 부정의한 사람을

8)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가 서로에 대해 묘사하는 부분, 그와 같은 설정의 의미를 『향연』이 설정한 알키비아데스와 소크라테스 관계, 이에 대한 묘사와 함께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9)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논박해가는 소크라테스의 대화와 논증에 대한 분석과 연구자들의 평가는 R. Barney의 “Socrates’ Refutation of Thrasymachus”를 참고하라.

10) ἔλαττον ἔχει-πλέον ἔχοντα-πλεονεκτεῖν의 내용은 343b-344c에서 우선 트라시마코스가 이해한 대로 소개된다.

11) 특히 342b에서 344c로 한 숨에 이어진 연설 격의 강변은 348c에서 트라시마코스가 그랬듯이 부정의를 훌륭함이자 덕으로, 정의를 못한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

12) 트라시마코스의 정의 주장은 몇 가지 관점과 논점을 섞어가며 진행된 것이라는 분석들도 참고할 만하다. T. D. J. Chappell, “The Virtues of Thrasymachus”. 임정진은 「트라시마코스 정의 규정의 일관성 고찰」에서 정의가 강한 자의 이득이라는 주장과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남에게 좋은 것이라는 서로 구분 가능한 논점들을 논쟁 상황의 진행에 따라 내놓고 있는 셈이고, 정의가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부정의의 문제까지 논의문맥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마지막 규정이 트라시마코스의 최종적 규정이라고 정리한다.

능가하고 싶어 하고 또 능가할 만 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 애초에 트라시마코스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촉발하는 문제들을 따라가 보면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이 검토되고 물려지는 가운데¹³⁾ 오히려 i) ‘강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받는 자, 트라시마코스의 어법을 따르자면 ‘약한’ 자라고 해야 맞을 상대의 이익을 위하는 것 그리고 ii) ‘능가하려들지 않음’이 말하자면 전문가 임의 표징, 즉 무엇에 정통함, 능숙함, 앎의 표징일 수 있음이 소크라테스에 의해 부각된다.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논박은 트라시마코스가 주장하듯 정의의 이름으로 통치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더 많이 가지려 들거나 남을 능가하려 드는 통치자가 있다면¹⁴⁾ 그런 자는 제대로 된 의미에서 강한 자도, 제대로 아는 자도 아님을 논증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a. 누군가를 제대로 된, 엄밀한 의미에서 항해사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항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기술 때문에 그리고 선원들을 통솔하고 있기 때문이다.(341d2-3)
- a'. 누군가를 제대로 된, 엄밀한 의미에서 의사라고 하는 것은 환자들을 돌보는 기술에 의거해서이다.(341c4-7)
- b. 선원과 환자에게는 각각 이로운 것(to sympheron)이 있다.
 - 1) 모든 기술은 각 기술이 관여하는 대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13) 무엇에 능한 사람은 자기가 능한 그 분야, 그 일에서 다른 능한 사람을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능가하려 들지 않는다. 350a-c의 논의 내용, 논증의 구조를 참고하라.

14) 트라시마코스는 자신의 첫 정의규정에서 언급한 더 강한 자의 전형을 지배자, 통치자에서 찾았다. 그러므로 ‘남’은 다른 통치자를 가리킨다. 341d 이하에서 통치역시 기술(technē)이며 기술이란 그 기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논의했다.

*1) 기술이란 (기술의 편에서 이로운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관여하는 대상에게 이로운 것을 찾고 제공하는 것이
 다.(341d7-8, 342b3-5, 324c4-5)

**1) 기술은 그 기술들이 위하는 것보다 강하고 이것을 지배한
 다.(342c8-9)¹⁵⁾

2) 그 어떤 기술, 앞도 더 강한 것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다. 반대로 약한 것이자 자신의 지배를 받는 것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시한다.(342c11-13)¹⁶⁾

정의란 강한 자, 지배하는 자의 이익이라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은 이런
 식의 논박과정을 겪는다. 지배하는 자는 그가 지배하는 자인 한 지배받는
 자, 자신이 업무를 맡아 하는 그들에게 이로운 것을 추구하고 지시한다.
 지배하는 자가 추구하는 것은 지배받는 자들에게 이롭고 적절한 것이며
 (sympheron kai prepon)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도 바로 이들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로써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 정반대의 논의가
 도출되었다.[i]

a . 음악가(mousikos anēr)는 리라를 조율하며 현을 조이거나
 늦출 때 다른 음악가를 능가하려(pleonektein) 들지 않는
 다.(349e10-14)

a´ . 의사는 음식을 처방하며 다른 의사를 능가하려 들지 않는
 다.(350a1-3)

b .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는 사람(epistēmōn, 지식 갖춘 사람)은

15) Ἀλλὰ μὴν, ὦ Θρασύμαχε, ἄρχουσί γε αἱ τέχναι καὶ κρατοῦσιν ἐκείνου οὐ
 πέρ εἰσιν τέχνηαι.

16) Οὐκ ἄρα ἐπιστήμη γε οὐδεμία τὸ τοῦ κρείττονος συμφέρον σκοπεῖ οὐδ' ἐπ
 ιάττει, ἀλλὰ τὸ τοῦ ἥττονός τε καὶ ἀρχομένου ὑπὸ ἑαυτῆς.

자신과 같은 사람, 지식 갖춘 사람과 동일한 일에서는 동일한 선택을 한다.(350a6-10)

c. 앎이 있는 사람은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은 못난 사람이다.(350b2-5, b10)

1) 앎과 무지, 훌륭함과 못남은 능가함(pleonektein)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관계를 형성한다.

*1)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은 자신과 같은 사람을 능가하려 들지 않으나 자신과 같지 않고 반대되는 사람은 능가하려 할 것이다.(350b7-8)

**1) 무지하고 못난 사람은 자신과 같은 사람도 능가하려 들고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도 능가하려 한다.(350b10-11)

2) 부정의한 사람이 자신과 같은 사람도 반대되는 사람도 모두 능가하려 드는 자이고 정의로운 사람은 자신과 같은 사람은 능가하려 들지 않고 반대되는 사람은 능가하고자 한다.(350b13-c2)

3) 정의로운 사람은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고 부정의한 사람은 무지하고 못난 사람이다.(350c4-5, c10-11)

능가하고 더 많이 가지려 드는 것은 앎, 훌륭함, 정의의 특징이 아니라 무지, 못남, 부정의의 특징임이 도출되었다.[ii] 기술과 앎은 능가하는 것,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취하려는 경쟁에서가 아니라 분별하는 데에서 발휘된다는 것이다.

어찌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정의에 관해 이제까지의 모든 답과는 다른, 아니 더 나은 대답을 내놓는다면요? 뭘 당하시는 게 마땅할까요?(337d1-3)¹⁷⁾

17) Τί οὖν, ἔφη, ἂν ἐγὼ δεῖξω ἑτέραν ἀπόκρισιν παρὰ πάσας ταύτας περὶ δικ

소크라테스의 대응이 신통치 못하면 그에게 무슨 벌이라도 부과할 것처럼 자신감 넘치던 트라시마코스는 결국 소크라테스의 논의방식을 따라갔고 소크라테스의 논리에 동의할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제가 지금껏 얘기한 것으로도 설득되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당신을 납득시킨단 말입니까?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가져다 당신 맘속에 집어넣기라도 해야 하나요?(345b4-6)¹⁸⁾

제가 그리 생각하든 않든 당신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제 주장을 논박하시는 터에.(349a9-10)¹⁹⁾

안심하시고 논의를 즐기세요. 저로서야 여기 이분들한테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생께 반대하지 않으렵니다.(352b3-4)²⁰⁾

그러나 트라시마코스가 소크라테스와의 대화에 진정으로 설득되어 정의에 대한 자신의 주장, 그것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애초의 자신감을 거두어 들었던 것은 아니다. 대화 이어가기를 포기하는 식으로 자신 앞에 놓인 문제에 대응하고 만다.

소크라테스님! 허면 이것을 벤디스축제에 당신을 위한 잔치로 삼으시지요.(354a10-11)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이 제기되고 또 논박되는 과정에서 소크라테스에 의해 정리된 ‘능가’의 논점은 ‘자기 자신의 것을 함’으로 규정될

αιουσύνης, βελτίω τούτων; τί ἀξιοῖς παθεῖν.

18) Καὶ πῶς, ἔφη, σὲ πείσω; εἰ γὰρ οἷς νυνδὴ ἔλεγον μὴ πέπεισαι, τί σοι ἐτι ποιήσω; ἢ εἰς τὴν ψυχὴν φέρων ἐνθῶ τὸν λόγον.

19) Τί δέ σοι, ἔφη, τοῦτο διαφέρει, εἴτε μοι δοκεῖ εἴτε μή, ἀλλ' οὐ τὸν λόγον ἐλέγχεις.

20) Εὐωχοῦ τοῦ λόγου, ἔφη, θαρρῶν· οὐ γὰρ ἔγωγέ σοι ἐναντιώσομαι, ἵνα μὴ τοῖσδε ἀπέχθωμαι.

21) Ταῦτα δὴ σοι, ἔφη, ὦ Σώκρατες, εἰστιάσθω ἐν τοῖς Βενδιδίοις.

『국가』의 정의 논의에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는 실마리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논의도 선구하는 셈이다.

Ⅲ. 알키비아데스: 소크라테스는 누구인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대답하는 일은 한사코 피한 채 질문만 해대는 사람²²⁾, 배우기만을 바라고 감사할 줄은 모르는 사람²³⁾, 남의 대답을 붙들여 논박을 일삼는 사람²⁴⁾, 나아가 상대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²⁵⁾으로 소크라테스를 규정했었다.²⁶⁾ 이처럼 치사한 수법을 쓴다고 비난하는 트라시마코스를 향해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좀 살살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비난을 받던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와 대화의 정리가 정리될 때 드눴던 화를 가라앉히고 잘 대해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를 돌린다.²⁷⁾ 소크라테스를 몹시 몰아치기로는 『향연』의 알키비아데스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숨어 기다리는 소크라테스를 또 만났다고 법석을 떠는 알키비아데스와의 화해 중재를 요청하는 소크라테스에게 화해는 기대하지도 말라고 그는 경고한다.²⁸⁾ 그러나 대화 내내 소크라테스의 이런 저런 수법을 고발하던 트라시마코스와 달리, 알키비아데스는 그 자신이 소크라테스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여러 수단과 방법(sophisma, epiboulēuma)

22) 『국가』, 337a3-7.

23) 『국가』, 338b1-3.

24) 『국가』, 337e1-3.

25) 『국가』, 350d9-e2, e6-7.

26) G. Vlastos(1994)의 논문과 김유석(2009)의 논문을 참고하면 플라톤 초기 대화 편들에서 주로 실연되었던 소크라테스의 엘렝코스, 즉 논박에 대한 연구사를 비롯해 유용한 논점들을 얻을 수 있다.

27) 『국가』, 351c4-7, 354a12-b1.

28) 『향연』, 213d7-e5.

쓰기를 마다하지 않았음을 처음부터 밝힌다. 소크라테스가 있는 앞에선 다른 누구도 찬양할 수 없어 소크라테스를 찬양하게 된 알키비아데스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무엇이 될지도 먼저 선언했다.

진실을 말할 겁니다. 그러니 그리 하게 두실지 보세요.(214e6)²⁹⁾

그러나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로부터,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지 말한다. 알키비아데스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그에게 수치를 안겨준 유일한 사람이다.

오직 이 분 앞에서만,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할, 그 수치를 내가 겪었네.(216b1-3)³⁰⁾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 아무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단언하는 알키비아데스에게 소크라테스는 볼품없는 겉모습 속에 신적이고 황금과 같은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을³¹⁾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알키비아데스만이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아름다움을 알아보았건만 정작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에게 혼란을, 예속된 노예의 굴욕만을 안겨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인간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길 바라기도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신이 훨씬 더 괴로워하리라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니 나, 즉 알키비아데스는 이분,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다. 이쯤 되면 ‘나’와 ‘이분’사이의 관계의 수상쩍음이 예사롭지 않음을, ‘나’의 마음이 결코 간단치 않음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이분’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쏟아 내놓는 ‘나’는 ‘그분’을 어찌 대해야

29) Τάληθη ἔρω. ἀλλ' ὄρα εἰ παρίης.

30) πρὸς τοῦτον μόνον ἀνθρώπων, ὃ οὐκ ἄν τις οἴοιτο ἐν ἐμοὶ ἐνεῖναι, τὸ αἰσχύνεσθαι ὄντινούν· ἐγὼ δὲ τοῦτον μόνον αἰσχύνομαι.

31) θεῖα καὶ χρυσᾶ εἶναι καὶ πάγκαλα καὶ θαυμαστά. 216e7-217a1.

좋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지만 ‘나’의 토로가 실은 ‘나’도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호소이자 고백인 것은 아닌가? ‘나’자신에 대해 아는 것은 나의 ‘그분’을 향하는 당혹스러움이 간단히 정리되지 않을 고통이라는 것 정도이다. 아니다. ‘그분’으로 인해 겪는 ‘나’의 혼란과 불안 말고 하나의 확고한 믿음 하나가 그(‘나’)의 이야기에서 읽힌다.

이분이 내 꽃다운 청춘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믿으면서 나는 이게 천우신조요 놀랄만한 행운이라 생각했네. 내가 소크라테스께 살갑게 대하면 이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것들 전부를 들을 수 있겠다고 여겼기 때문이지. 나는 정말이지 내 꽃다운 청춘을 몸피도 자부하고 있었거든. [...] 난 이분과 단둘이 있었고 곧 사랑하는 자가 소년애인과 내밀하게 나누는 바로 그 대화들을 나와 나눌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네.(217a2-b5)³²⁾

그런데, 알키비아데스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운 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자들 주변에 머무는 사람인데도³³⁾ 알키비아데스의 기대, 예상과는 달리 아름다운 그가 원하는 것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술 취한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상태를 고백한다.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분의 본성과 절제와 용기에 탄복하고 있었지. 사리분별과 깨끗함에 있어서 도대체 만나리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인간과 만났으니 말일세. [...] 이분과 함께 어울리는 일을 그만 둘 도리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분을 어떻게 피어낼지 알지도 못해 막막해 하고 있었네. [...] 또한 내가 그분을 사로잡을 유일한 수단이라 여기고 있던 것과 관련해서는 그분이 나를 피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이네. 그래서 난 막막해 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다른 누구에게든 그러지 못할 만큼 그 인간의 노예로 전락하여 돌아다녔네.(219d3-e5)

32) 『향연』은 대체로 강철웅(2010) 번역을 따랐다.

33) ὅτι Σωκράτης ἐρωτικῶς διάκειται τῶν καλῶν καὶ ἀεὶ περὶ τούτους ἐστὶ καὶ ἐκπέπληκται. 216 d2-3.

알키비아데스는 정말 무엇을 원했는가?³⁴⁾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인가?

IV. 청동을 황금과: 자신의 몫을 능가하려 들다

앞은 순서에 따라 저마다의 에로스 예찬을 돌리며 아가톤의 비극 경연 우승을 축하하던 자리였다. 알키비아데스는 향연이 한참 진행된 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연설도 끝나고 이야기 순배가 거의 돌았을 무렵 들이닥쳤다. 소크라테스의 진실을 말하겠다는 알키비아데스는 연설 틈틈이 소크라테스의 휘브리스를 고발함으로써(215b, 219c, 222a) 자신에 대한 그의 부당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휘브리스를 범했다는 지적은 알키비아데스가 처음이 아니다. 그의 고발보다 훨씬 먼저, 그가 잔치에 합석하기 전에 아가톤이 이미 그의 휘브리스를 지적했었다. 잔치자리에 뒤처져 들어오는 소크라테스에게 앉을 자리를 권하며 몸이 서로 닿을 때 방금 문 앞에서 소크라테스가 발견한 지혜를 좀 옮겨 받고 싶으니 자기 옆에 앉으라고 하던 아가톤이 이미, 즉 지혜가 그렇게 더 가득한 곳에서 빈 곳으로 흐르듯 옮겨 다니는 것이라면 만인 앞에서 지혜와 실력을 공인받은 아가톤 옆에 앉아 아가톤의 지혜로 보잘 것 없는 자신을 채우고 싶다고 응수한 소크라테스에게 그의 이런 대꾸를 소크라테스의 ‘휘브리스’로 꼬집어 되갚아주었던 것이다.³⁵⁾

34) M. Davis는 *The Soul of the Greeks*의 마지막 장에서 알키비아데스의 연설과 소크라테스의 연설을 비교하며 두 사람 모두 자기 연설의 진리성을 주장한다는 것을 비롯해 두 연설 사이에 상당한 연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Davis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향연』에서 알키비아데스의 연설 그리고 알키비아데스 자신이 디오티마의 가르침으로 인해 소외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개(thymos)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이 영혼에 관한 논의에 현실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35) 175c-e, 그렇게 응수한 소크라테스는 하여간 아가톤 옆에 앉았고 이것이 다시 알키비아데스를 흥분하게 했다.

사실 『향연』에서 가장 먼저 ‘휘브리스’를 논의에 올린 사람은 소크라테스 자신이다. 아가톤의 초대를 받아 평소와는 달리 아름답게 차려입고 그의 집으로 향하던 소크라테스는 길에서 아리스토테모스를 만났다. 초대받지 않은 그를 잔치로 데려가며, 다시 말해 본격적인 향연이 시작되기 전에³⁶⁾, 『일리아스』를 말머리 삼아 호메로스의 휘브리스, 혹은 메넬라오스의 휘브리스에 빗대어가며 자신의 사정애기를 꺼냈었다.³⁷⁾ 앞으로 대화 상대들로부터 여러 차례 휘브리스를 지적받게 될 소크라테스이지만 말하자면 휘브리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훌륭하게 하고 훌륭한 사람에게, 아름답게 하고 아름다운 이에게 간다고³⁸⁾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톤의 많고도 아름다운 지혜를 거론하여 응수함으로써 소크라테스는 휘브리스를 이내 지적당하고 말았다.

비록 아름다운 아가톤에게 가기에 걸맞은 자가 되기 위해 잘 갖추고, 즉 아름답게 하고 길을 나섰지만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다. 옆자리를 권하는 아가톤에게 결코 아름다움에서도 또한 지혜에서도 자신을 그와 견줄 수 없음도 스스로 밝혔다.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잔치 초입에 휘브리스를 지적받으면서까지 선뜻 인정한 아가톤의 아름다움에 대해 소크라테스가 견지할 만한 속생각은 향연이 진행된 후 드러나게 될 아름다운 알키비아데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입장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소크라테스의 에로스 연설 자체가 바로 그의 아름답지 않음을 출발점으로 삼은 것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소크라테스의 연설을 듣지 못한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에게서 아름다움을 찾았다.

36) 『향연』의 드라마적 구조에 대해서는 강상진의 「플라톤 『향연』의 틀 이야기-독특한 거리두기」, W. Prior의 “The Portrait of Socrates in Plato’s *Symposium*”을 참고하라.

37) 『향연』, 174b3-d3.

38) ταῦτα δὴ ἐκαλλωπισάμην, ἵνα καλὸς παρὰ καλὸν ἴω. 174a8-9.

선생님만이 유일하게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제게 말하는 걸 주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선생님에게 살갑게 대하지 않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제가 가능한 한 가장 훌륭한 자가 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제겐 아무것도 없으며, 이 일에 있어서 저를 도와 줄 사람으로 선생님보다 더 권위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

오, 알키비아데스, 그렇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일 것이야. 자네가 나에게 관해 말하는 것들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내 안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자네가 더 나은 자가 될 수 있다면 말이네. 그렇다면 자네는 내게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자네 자신에게 있는 미모와는 월등히 차이가 나는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거라 할 수 있네.

자네가 바로 그걸 보고서 나와 흥정하여 아름다움을 아름다움과 맞바꾸려 하고³⁹⁾ 있다면 나를 적잖이 능가하려는 생각인⁴⁰⁾ 건데, 그것도 이만저만한 차이가 아니라 그저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을 내놓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얻겠다고 시도하는 것이며 이는 참으로 “청동을 황금과” 맞바꾸겠다고 마음먹고 있는⁴¹⁾ 것이네. 하지만 내가 실은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자네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더 잘 살펴보게.⁴²⁾

알키비아데스에 의하면 보잘것없는 외관을 하고 있는 바람에 남들이 좀처럼 알아채기 어려운 소크라테스의 진면목을 그만이 알아보았다. 소크라테스만이 그의 애인(erastēs)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알키비아데스가 제대로 알아보았다는 소크라테스의 황금과 같은 훌륭함(아름다움)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확신하고 자신하고 있던 알키비아데스로서는,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움을 얻고자 한 것이다. 아름다운 자들에게로 곧잘 끌리는 소크라테스에게 자신의 빛나는

39) ἀλλάξασθαι κάλλος ἀντὶ κάλλους.

40) οὐκ ὀλίγῳ μου πλεονεκτεῖν διανοῆ.

41) τῷ ὄντι "χρύσεια χαλκείων" διαμείβεσθαι νοεῖς.

42) 『향연』, 218c-219a.

아름다움으로 승부를 걸고자, 소크라테스의 사랑을 받고자 했다. 그러나 잔치의 화제(話題)를 정할 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지만 사랑에 관한 일만큼은 알고 있다고 얘기했던⁴³⁾ 소크라테스의 진의는 그의 연설에서 밝혀졌다.

디오티마의 이야기⁴⁴⁾, 그중에서도 210a4-211d1에 집중적으로 보고되는 디오티마의 최고의 비의는 사다리의 비유, 에로스의 사다리로도 잘 알려져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누구든 올바르게 가려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먼저 특정한 몸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하여 그 안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낳고 다시 하나의 몸에서 다른 몸으로 나아가되 여러 몸에 속한 아름다움이 서로 같은 종류임을 깨닫고, 특정한 몸으로부터 몸의 아름다움 일반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시 몸의 아름다움에서 법과 관습의 아름다움으로 또 이것들이 동류의 아름다움임을 깨닫는 단계로, 앞의 아름다움으로 올라가며 아름다움 자체를 볼 때 까지 그러한 상승은 계속된다.

소크라테스는 아름답지 않기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아름다움 자체에 이르기까지 그 상승의 노력, 운동을 계속하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현재 도달해 있는 상태, 아름다움 자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불완전한 상태이자 과정을 넘어서고, 그보다 더 많이 가지려하며 능가하려고 애쓴다.

43) ὁς οὐδέν φημι ἄλλο ἐπίστασθαι ἢ τὰ ἐρωτικά. 177d7-8.

44) 『향연』, 201d-212a. 소크라테스의 에로스 연설은 물론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디오티마로부터 듣고 배운 것이다. 말하자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연설의 주인을 따로 두고 그를 보고자의 자리에 놓음으로써 『향연』은 아는 것 없기에 탐구하고 아름답지 않기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소크라테스를 일관성 있게 묘사하는 동시에 에로티카에 열심인 그 자리의 소크라테스를 살려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V. 자기 돌보기: 텔레마키아 또는 에로티카

비통한 마음으로 구혼자들 사이에 앉아 있던 그는 어디선가 홀연히 아버지께서 나타나 온 집안에서 이 구혼자들을 내쫓으시고 몸소 명예를 차지하시고는 재산을 다스리셨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훌륭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⁴⁵⁾⁴⁶⁾

그분께서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사라져버렸고 내게 고통과 비탄만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나 내가 슬퍼하는 것은 그분 때문만이 아닙니다.⁴⁷⁾

텔레마코스. 집안을 돌보지 않는, 아니 20년이나 버려 둔 채 집 떠나 있는 오디세우스, 그 생사 불확실한 아버지 때문에 텔레마코스의 현재는 불안했다. 그의 생사만이 아니라 이제는 존재사실 여부도 의심스럽다. 과연 그가 나의 아버지가 맞기는 한 건지 그의 화려한 옛 명성이야 어찌 되었든 하필이면 살림도 건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대로 된 상속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원망하는 것이다. 젊고 약하고 불안한 텔레마코스는 오디세우스로 비롯된 듯 보이는 자신의 불운을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아버지의 오랜 부재를 이용해 어머니 페넬로페를 차지하겠다는 미래의 내 것이어야 마땅한 아버지의 재산을 결판내며 집안에 죽치고 들어앉아 자신을 모욕해대는 구혼자들⁴⁸⁾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이들을 처리하며 자신이 오디세우스의 상속자임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45) 『오뒷세이아』 1권, 114-117, 텔레마코스가 손님에게 말하는 대목에서 어미를 바꾼 것 외에는 천병희의 번역을 인용했다.

46) 텔레마코스는 집에 앉아서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기다리는 모습으로, 오디세우스는 칼립소의 섬 오귀기아 바닷가에서 돌아갈 길 없는 떠나온 집을 그리며 신음하는 모습으로 각각 첫 등장한다. 『오뒷세이아』 1권과 5권의 구성적인 대응, 그리고 내용적인 연관성 문제도 흥미로운 주제이다.

47) 『오뒷세이아』 1권, 242-243.

48) 드디어 귀향한 아버지와 해후하는 장면에서 텔레마코스가 오디세우스에게 헤아려주기로는 딸려온 시종들을 빼고 페넬로페의 구혼자만 108명이다.

원망스러운 아버지의 대 출현을 바라고 꿈꿀 길 밖에 다른 수가 없는 자신, 그래서 한 번 더 비탄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손님이여, 내 그대에게 솔직히 다 말씀드리겠어요.
어머니께서는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나 자신은 모르는 일이지만. 자신을 낳아준 분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오, 내가 자신의 재산에 둘러싸여
노년을 맞는 그런 축복 받은 분의 아들이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지금 나는 필멸의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불운하신 분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물으시니 하는 말이지
만요.⁴⁹⁾

멘테스라 자신을 소개하며 불안한 처지에 놓여있는 텔레마코스를 찾아온 아테네는 불만에 가득 차 웅크리고 있던 그를 설득했고 오디세우스의 자취를 쫓는 수소문여행을 떠나도록 그리고 마음속에 어렴풋이 품고는 있으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일, 구혼자들의 처치를 궁리하는 여행을 떠나도록 한다. 이 여행은 텔레마코스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⁵⁰⁾

그대는 더 이상 어린애 같은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오. 이제 그럴 나이는 지났소. [...] 내가 보기에 그대도 용모가 준수하고 체격이 당당하니 용기를 내시오. 후세 사람들까지 그대를 칭찬하도록 말이 오.⁵¹⁾

20년에 걸친 오디세우스의 것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텔레마코스 역시 집을 떠났고 또 돌아왔다. 후에 돌아온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버지와 함께 집안의 구혼자들을 물리칠 계획을 의논하던 텔레마코스는 말한다.

49) 『오뒷세이아』 1권, 214-220.

50) 오래된 글이기는 하나 텔레마코스의 변화와 성장을 논하는 H. W. Clarke의 “Telemachus and the *Telemacheia*”를 참고했다. 텔레마키아를 일종의 성장문학의 고전적 전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51) 『오뒷세이아』 1권, 296-302.

아버지! 제 마음이 어떠한지는 아버지께서도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요. 저는 생각하는 것이 경솔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제안은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이롭지 못할 것 같네요. 저는 아버지께 심사숙고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각자를 시험해 보시려고 일일이 들판으로 찾아가시어 많은 시간을 무익하게 보내시는 동안, [...]52)

텔레마키아는 텔레마코스의 자기이해가 성숙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아버지 에오스페르에 대한 확신, 따라서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고 겪고 있는 현실을 헤쳐 나갈 수도 없었던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의 흔적만을 뒤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래서 불안한 자아를 극복해보는 길을 떠난 것이다.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장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디선가 홀연히 아버지께서 나타나 온 집안에서 이 구혼자들을 내쫓아”주길 바라던 텔레마코스는 이제 아버지 오디세우스에게 심사숙고할 것을 권고하며 계책 많기로 유명한 오디세우스의 방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53)

알키비아데스가 들이다치기 직전 소크라테스는 이미 순서에 따라 에로스를 예찬했다. 소크라테스는 그 자신이 진정으로 설득되었고 이제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득하려 한다는 디오티마의 이야기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연설을 대신했다. 소크라테스는 보고를 시작하며 디오티마를 만났을 때의 자신이 방금 자신이 논박한 아가톤과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아가톤은 에로스를 예찬하며54) 에로스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다고(eudaimonestaton einai autōn, kalliston onta kai ariston,

52) 『오뒷세이아』 16권, 309-314.

53) 아카이아인들의 참혹한 귀향을 노래하는 가인에게 다른 노래를 부르라고 이르는 어머니를 향해, 아테네의 권고대로 여행 떠날 마음이 든 텔레마코스가 ‘노래는 가인에게 맡기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일을’ 하라고 짐짓 책망하기도 하지만(1권 345-361) 이것이 텔레마코스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54) 『향연』, 194e-197e.

195a6-7) 주장했다. 그리고 에로스의 대상은 아름다움, 아름다운 것(dēlon hoti kallous protou dē, 197b5; ek tou eran tōn kalōn, 197b8)이다. 아가톤의 주장에 대한 소크라테스 논박⁵⁵⁾의 열개는 다음과 같다.

- a. 에로스는 대상을 갖는다.
- a' 어떤 대상에 대한 에로스란 그것에 대한 욕망을 의미한다.
- b. 욕망은 결여에 대한 것이다. 즉, 자기가 결여하고 있는 것을 욕망한다.
- c. 에로스는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지 추함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 d. 갖고 있지 않은 것, 아직 그 자신이 아닌 것, 결여하고 있는 것을 욕망하고 사랑하는 것이므로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디오티마에게 논박 당했다. 디오티마를 만날 때 까지 아가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크라테스를 논박하는 과정에서⁵⁶⁾ 에로스는 아름답지 않지만 그렇다고 추하지도 않은 것, 아름다움과 추함의 중간적인 것이라는 논점이 확보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그 자신 아름다움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즉 아름답지 않기에 바로 이것을 욕망한다는 에로티카의 논리가 디오티마의 소크라테스 논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말하자면 디오티마의 소크라테스 논박을 단초로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에 이끌리어 그의 텔레마키아를 감행할 수 있었고 에로스 에 관한 일에는 더 이상 무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잘 아는 사람(deinos ta erōtika, 198d1-2)으로 자기 자신을 부를 수 있었다.

55) 『향연』, 199e6-201b12.

56) 『향연』, 201e3-202b5.

그러나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에로티카에 열심인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운 자가 아니다. 디오티마의 논박에서 출발함으로써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움에 대한 결여로부터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과 그리로 향하는 상승을 구성해 낼 수 있었다.

텔레마코스에게 멘테스 또는 멘토르의 모습으로 등장한 아테네의 인도가 있었고 그렇게 착수한 텔레마키아를 완수해냄으로써 텔레마코스는 자신의 문제를 일정히 돌볼 수 있게 되었다. 『향연』의 소크라테스에게는 디오티마가 에로스 에 관한 가르침을 주었고 이것에 설득된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의 가르침에 따라 에로스 에 관해 알게 되었다. 이 점에서 텔레마코스의 텔레마키아와 소크라테스의 에로티카는 닮음꼴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텔레마코스의 텔레마키아는 오디세이아와의 연관 속에서 등장하고 오디세이아와 함께 진행된다. 즉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귀향한 오디세우스를 만났으며 또 텔레마키아는 오디세우스의 집을 되찾는, 말하자면 오디세우스가 어려움 끝에 자신과 자신의 것을 되찾아 천명하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는 오디세우스의 일에 조력함으로써 마무리될 일인 듯이 구성되어 있다. 후세에 명성이 남도록 용기 내어 한 몫을 하라는 멘토르의 격려가 있었고 오디세우스에게 충고도 마다 않는 텔레마코스의 성장이 발견되지만, 일단 우리에게 전해진 호메로스의 작품 속에서 텔레마키아는 오디세우스의 귀향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렇다면 에로티카의 경우는 어떠한가?

소크라테스를 진정으로 설득한 디오티마의 비의는 아름다움을 향한 끊임 없는 오름을 강조하고 있다.⁵⁷⁾ ‘아름다움 자체’라는 상승의 최종 목표를 두었으나 “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an ti haptoito tou telous, 211b7)”라는 상승의 노력은 텔레마코스의 귀가와 같은 종류의 종결점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보고한 디오티마의 연설 속에서도 분명해지

57) ἐκεῖνου ἕνεκα τοῦ καλοῦ ἀεὶ ἐπανιέναι. 211c2.

듯, 소크라테스의 에로티카가 알키비아데스와 같은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종착하는 일도 없다. 아름다움으로 이끌리는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전 단계의 아름다움이 보잘 것 없음을 알게 되기에, 소크라테스의 에로티카에는 황금이나 아름다운 젊음이 하나나 한 행실의 아름다움에 만족하여 거기에 매이지 않음이(210d1-3, 211d3-5) 포함되어 있다. 디오티마가 강조하는 에로티카의 비의는 그 상승의 과정을 감행하는 사람,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에게, 상승의 전체 과정에 비추어 보자면 하나의 낮은 계단에 불과한 소위 아름다운 알키비아데스에 대한 에로스로서 그 상승이 완성될 것이 아님을, 즉 소크라테스로서는 알키비아데스에게서 멈추고 머물 수 없음을 분명히 해준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잔치 참석자들이라면, 따라서 『향연』의 독자들은 소크라테스로부터 수치를 겪었다는 알키비아데스의 호소, 소크라테스로부터 받아야 했으나 받지 못한 정당한 몫에 대한 알키비아데스의 주장이 에로티카에 내내 열심인 소크라테스에게는 오히려 지나친 것임을 알 수 있다. 알키비아데스와 사랑은 아름다움 자체로 향하는 상승의 전체 관점에서 보자면 시작 단계의 것이기 때문이다. 상승을 감행하는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에게 줄 그의 적절한 몫은 알키비아데스 외에 다른 여러 몸들에서 발견하게 되는 아름다움과 알키비아데스의 아름다움이 같은 종류의 것들임을 깨닫게 될 때, 또 몸의 아름다움이 법과 관습의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단서가 됨을 알게 될 때 바로 그 안에서 그런 정도로 한정될 성질과 종류의 것이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에로스 연설로부터 확인되었다.⁵⁸⁾

58) 반면 정신분석의 관점을 들고 들어오는 J. Lear는 *Open Minded* 7장 “Eros and Unknowing: The Psychoanalytic Significance of Plato’s *Symposium*”에서 디오티마가 요청하는 ‘상승’에는 아름다움을 낳기 위한 진통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말하자면 정신분석에서 분석자는 피분석자의 저항에 직면하게 마련인데 이러한 저항을 뚫고 올라야 한다는 산고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디오티마 혹은 플라톤의 저항과 달리 보편이 아니라 개별성에 주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Lear 역시 Nussbaum(1986), Davis(2011)와 같은 해석 노선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프로타고라스』를 다루며 논의한 것이지만 알키비아데스와 소크라테스의 갈등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는 측정의 문제를 비판함

만일 알키비아데스가 주장하듯이, 비록 소크라테스 자신은 그런 것의 존재를 부인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서 아름다움을 보았다면 알키비아데스 역시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하되 그러나 아름다움 자체를 볼 때 까지 그 자신의 에로티카를 감행해야 한다. 그러나 디오티마의 가르침을 듣지 못한 알키비아데스 그래서 전술한 바와 같이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을 검토해본 바 없는 알키비아데스로서는 자신이 당한 굴욕, 수치를 달리 헤아릴 길이 없다.

VI. 맺는말

『국가』에서 진행된 플라톤 정의론의 중심은 ‘적절한 몫(prosēkon, ta prosēkonta)’에 대한 논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문제에 대한 『국가』의 중심논의를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히 요약해보자. 각자에게 적절한 것을 돌리고 각자가 적절한 것, 즉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정의이며 정의로운 공동체란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도록 질서 잡혀 있는 공동체이고 또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다. 이때의 공동체는 한 개인(개인의 영혼)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다. 『국가』1권은 만족스러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대화가 일단락되는 것으로 서술되었다. 그러나 이 ‘적절한 몫’이라는 중요한 논점과 관련되는 상당히 핵심적인 논의를 제1권의 대화가 선구하고 있다. 즉 ‘적절한 몫’의 대립쌍이라고 할 수 있는 ‘더 많이 가짐(pleon echein)’, ‘능가함(pleonektein)’, ‘제 몫 이상을 차지함(탐욕,

으로써 Nussbaum(1990)이 촉발한 문제는 *Love's Knowledge* 3장 “Plato on Commensurability and Desi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Price(1995)가 *Mental Conflict* 제1장에서 하고 있는 Nussbaum 비판도 함께 읽어볼만 하다.

pleonexia)’이라는 개념과 이를 둘러싼 문제제기가 이곳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의 대화맥락이 바로 그 지점이었다(II). 능가함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분석을 정리하며 이것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라는 소크라테스의 요청을 되풀이 보고자 했다. 이 논의에서 정의에 대한 대화자들의 주장과 논의가 점검받을 뿐만이 아니라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행위 주체의 특정한 자기이해의 문제를 일정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⁵⁹⁾

말하는 사람 자신의 자기이해에 관해서는 『향연』의 알키비아데스와 함께 좀 더 생각해 보았다. 화관을 쓰고 들이닥친 술 취한 알키비아데스는 에로스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에 대한 찬양연설을 시작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바로 “과연 어떤 일들을 나 자신이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키비아데스의 소크라테스 찬양은 알키비아데스 자신의 이야기와 섞이며 어떤 의미에서든 그는 그 자신을 드러낸다(III). 알키비아데스는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결과, 자신의 예상과 어긋나는 일을 겪는다. 혹은 마땅히 돌아왔어야 할 대접으로 보답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크라테스로부터 부당한 처사를 ‘당했다고 믿고’ 있다.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의 관계에서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보고하는 대목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문제의 그 ‘헤아릴 수 없음’은 이중적이다. 알키비아데스의 측정 실패는 먼저 같은 자, 같은 기준으로 재어지지 않을 것, 잴 수 없는 것을 같은 틀에 넣고 하나의 자로 재려들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즉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는 원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지적이다. 그러나 알키비아데스로서는 자신의 연설 또는 호소를 청동을 가지고 황금을 얻으려 하다 실패한 사람의

59) 『국가』 349e-350c, pleonektein이라는 계기로 앎과 무지, 정의와 부정의의 특징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와 정의로운 사람, 아는 사람은 자신과 반대되는, 즉 부정의한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능가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때의 능가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

항변이자 제 몫보다 더 가지려는 탐욕(pleonexia) 때문에 일어난 파국처럼 취급한 소크라테스의 대응이 마땅치 않다. 알키비아데스의 불안은 그가 원한 것-황금으로 비유되는 사람을 훌륭하게 해주는 것, 아름다움, 또는 소크라테스의 사랑-을 갖지 못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자신은 그렇게도 황금으로 확신하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소크라테스에 의해 청동, 하찮은 것으로 대우받았다는 뒤늦은 자각 때문만이 아니다(IV). 알키비아데스는 그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원했다. 그리고 또한 소크라테스가 전해준 디오티마의 에로스 연설을 듣지 못한 알키비아데스로서는 아름다운 자신이 아름다운 혹은 아름답지 않은 소크라테스에게 거절당하는 수치를 헤아릴 길이 없다. 그런데 ‘적절한’ 몫의 대변자로 공히 인정되는 소크라테스에게도 능가의 계기가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다. 소크라테스로서는 아름다운 알키비아데스나 아가톤과 같은 것들에서 자신의 에로티카를 멈추지 않았다는 그 점에서 디오티마의 가르침에 따르며 ‘적절함’을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아름다움을 결여한 자인 한, 그래서 항상 그런 자신을 능가하고자 할 것이다. 능가의 계기에 의해, 능가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에로티카의 전체 여정이 확장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사랑하는 일, 에로티카에 ‘적절한 것’은 오히려 자신(현재의 것)을 능가하는 것이다.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이야기, 텔레마키아 부분에 주목했다. 물론 작품의 연대기로 보자면 호메로스의 텔레마키아가 소크라테스 철학의 예화일 수는 없으나, 이 텔레마키아를 자신을 돌보라는 소크라테스의 축구가 특정한 방식으로 수행된 고전적 에로 간주해 볼 수 있음을 제안했다. 텔레마코스는 물론 불안한 자아를 극복하는 자기탐구의 여행을 통해 보다 완전한 혹은 훌륭한 남자로 성숙해갔지만 그의 텔레마키아는 귀향한 오디세우스와 함께 그를 드러냄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아름답지 않기에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노력, 훌륭하지 않지만 바로 그래서 훌륭해지고자 훌륭함을 향한 열망을 갖고 지속적인 상승을 감행하는 『향연』속의 소크라테스도 말하자면 그 자신의 텔레마키아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성찰을 향한 소크라테스의 부단한 요구는 그러나 『향연』에서 소크라테스의 아름다움 없음, 아름답지 않음을 출발점으로 하는 사랑하는 일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로 자리 잡는다(V). 소크라테스가 이곳에서 말하고 감행하는 에로티카가 아름다움 자체를 보게 됨으로써 끝날 것이라고 혹은 최소한 텔레마코스의 그것처럼 일단락되리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⁶⁰⁾ 앞으로의 논의를 이어갈 단서를 언급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이곳의 소크라테스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정점이자 다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다운 것이게 해주는 아름다움 자체를, 그것의 존재를 강조하기 위해 에로티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름답게 차려 입고서 아름다운 아가톤에게 찾아가는 소크라테스의 첫 노력은, 비록 아가톤의 아름다움이 지니는 명백한 한계에서도 금방 짐작할 수 있겠지만, 제한된 방식으로나마 소크라테스 자신과 그리고 독자들에게 소크라테스의 에로티카를 예비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에로티카는 끝점으로 해서 다시 말해 여행의 완성 때문에 비로소 의미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 아가톤의 힐난, 알키비아데스의 고발을 무릅쓰고서라도 현재의 자신을 항상 넘어서고 능가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곳에서 밝히는 에로티카의 본 모습이다. 그러므로 여러모로 예사롭지 않은 『향연』의 소크라테스 역시 ‘헤아림-헤아릴 수 없음’에 달려있는 문제의 한 축, ‘능가’의 계기를 내면화했다고 하는 것이다.

60) 이 논문을 친절하고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고 앞으로 다루어할 문제들까지 제안 해주신 세 분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불안을 대회주제로 했던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초고로 삼고 있는 바람에 이 주제와의 엉거주춤하고 불안한 동기의 흔적을 말끔한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이 글의 여러 약점 중에서도 가장 아픈 약점이다. 그러나 『향연』의 에로티카가 아름다움 자체, 혹은 아름다움의 이데아에 도달하면 바로 그곳에서 종착할 것이라는 심사자의 주장 또는 해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음만을 밝혀두고 본격적인 논의는 다른 자리를 찾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플라톤, *Politeia*, in *Platonis Opera IV*(ed. I. Burnet), Oxford.
- 플라톤, *Symposion*, in *Platonis Opera II*(ed. I. Burnet), Oxford.
- 플라톤, 박중현 역(2005), 『플라톤의 국가·政體』, 서광사.
- 플라톤, 강철용 역(2010), 『향연』, 이제이북스.
- 호메로스, 천병희 역(2006) 『오뒷세이아』, 숲.
- 강상진(2000), 「플라톤 『향연』의 틀 이야기-독특한 거리두기」, 『서양고전학연구』 15집.
- 김유석(2009), 「플라톤의 초기대화편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의 엘렝코스」, 『서양고전학연구』 35집.
- 임성진(2011), 「트라시마코스 정의(正義) 규정의 일관성 고찰」, 『철학사상』 41호.
- Barney, R.(2008), “Socrates’ Refutation of Thrasymachus”, *The Blackwell Guide to Plato’s Republic*, (ed. G. Santas), Blackwell Publishing.
- Chappell, T. D. J.(1993), “The Virtues of Thrasymachus”, *Phronesis*, 38.
- Clarke, H. W.(1963), “Telemachus and the *Telemacheia*”,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84.
- Nussbaum, M. C.(1986), *The Fragility of Goodness*, Cambridge.
- Nussbaum, M. C.(1990), *Love’s Knowledge*, Oxford.
- Davis, M.(2011), *The Soul of the Greeks*, Chicago UP.
- Lear, J.(1998), *Open Minded*, Harvard UP.
- Price, A. W.(1995) *Mental Conflict*, London.
- Prior, W.(2006), “The Portrait of Socrates in Plato’s *Symposium*”,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31.
- Vlastos, G.(1994), “The Socratic elenchus: method is all”, *Socratic Studies*(ed. M. Burnyeat), Cambridge UP.

【Abstract】

The concept and the discussion of appropriateness (*prosēkon*) in Plato's *Republic* is one of core arguments for his theory of justice. The anxious confrontation of Thrasymachus against Socrates also has been encapsulated in the related key-words, such as '*pleonektein*' and '*pleonexia*'. With careful analysis of these terms we can outset an inquiry for the significance of sincere persuasion of Socrates concerning "caring for oneself(*epimeleia heautou*)". When he made a hymn to Socrates, Alcibiades has actually exposed himself and what he believes on his unbelievable shame, supposedly coming from Socrates. On Alcibiades' point of view he is not able to understand or measure this kind of emotion and suffering. But our famous proponent of *prosēkon*, Socrates himself internalizes the desire for exceeding(*pleonektein*), as far as he is the one who is not beautiful and the one who is eager for the ascent up to the beautiful, and that is the endless work of eros, erotica.

【Keywords】 self-understanding, immeasurability, pleonektein, erotica, Telemacheia.

논문 투고일: 2012. 04. 12

심사 완료일: 2012. 04. 23

게재 확정일: 2012. 04. 23

